

소피 오두인마미코미안 Sophie Audouin-Mamikonian



1961년 프랑스에서 태어난 소피 오두인마미코미안은 파리의 아사스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했으며, 지금은 두 딸을 둔 어머니이다. 그녀의 대표작 <타라 덩컨> 시리즈는 통제할 수 없는 신비한 능력을 가진 한 어린 소녀 주인공 타라덩컨에 관한 이야기이다. 타라 덩컨 시리즈는 2013년까지 계속해서 1년에 한 권씩 출간될 예정이며, 최근 어른들을 위한 스릴러작품 <만찬>이 발간되었다.

Sophie Audouin-Mamikonian est née en France où elle a puisé les contes et légendes alimentant son imaginaire. Connue pour sa dodécalogie, "Tara Duncan", elle s'est aussi récemment illustrée dans le genre du thriller avec "La danse des obèses".



<타라 덩컨 7 : 유령들의 습격> (소담)
"Tara Duncan : Dans le piège de Magister"

스테판 도베르 Stéphane Doyert



스테판 도베르는 동남아시아 정치 및 역사 전문가이다. 아시아 현대 연구소(IRASEC)를 창립, 2003년까지 연구소를 이끌었으며, 동남아시아에 관련한 수많은 연구서나 에세이 및 아시아 지역을 배경으로 한 소설을 발표한 작가이기도 하다. 현재는 프랑스 외무부의 서적 및 미디어 부서의 책임자로 일하며 집필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Stéphane Doyert est un spécialiste français de l'Histoire et des Sciences Politiques de l'Asie du Sud-Est. Il est l'auteur de nombreux essais et publications sur l'Asie du Sud-Est ainsi que de romans se déroulant dans cette rég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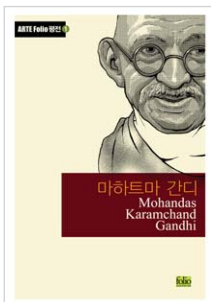
"Le cannibale et les termites"

크리스틴 조디스 Christine Jordis



크리스틴 조디스는 알제리에서 태어나 파리의 소르본 대학과 미국의 하버드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후 첫번째 에세이집 <다양한 작은 지옥들>로 페미나 에세이상과 마르셀 티에보상의 영광을 얻으며 주목을 받았다. 꾸준히 에세이를 집필하며 <타미즈 사람들>로 메디치 에세이상을 수상했고, 여행에세이 <꿈을 꾸며, 발리와 자바로>와 <미안마 산책>이 영어, 네덜란드어, 한국어 등으로 번역되어 소개되었다. 현재는 집필활동뿐 아니라 프랑스 갈리마르 출판사에서 영미문학 파트의 책임자로도 일하고 있다.

Née en Algérie, Christine Jordis a étudié la littérature anglaise à l'Université de la Sorbonne, à Paris, et à celle de Harvard, aux Etats-Unis. Depuis 1991, elle dirige le domaine anglo-saxon chez Gallimard et continue de publier des essais et récits de voyages.



<마하트마 간디> (아르테)
"Gandhi"

마르크 레비

Marc Lévy



1961년 파리의 교외에서 태어난 마르크 레비는 37세가 되던 해에, 방송작가인 누이동생의 권유로 출판사에 보낸 〈저스트 라이크 헤븐〉의 원고가 출간이 결정되면서 소설가로서의 인생을 시작했다. 출간 즉시 프랑스에서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며 영화로도 제작되어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은 〈저스트 라이크 헤븐〉에 이어, 두 번째 소설 〈너 어디 있니?〉, 그리고 세 번째 소설 〈영원을 위한 7일〉이 모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이후에도 꾸준한 작품 활동으로 〈그대를 다시 만나기〉, 〈행복한 프랑스 책방〉, 〈차마 못다한 이야기들〉 등을 출간했으며, 그가 지금까지 발표한 작품들은 총 41개의 언어로 전세계에 번역되어 2천만부가 넘는 판매량을 기록했다.

Marc Levy publie son premier roman "Et si c'était vrai" en 2007. Depuis, tous ses romans figurent, dès leur parution, en tête des ventes annuelles en France et connaissent un succès international. Traduits en 41 langues, ses ouvrages ont été tirés à plus de 20 millions d'exemplai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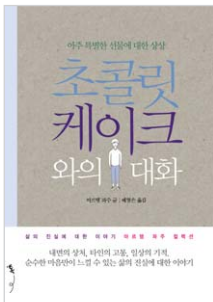
〈첫번째 날〉 (열림원)
"Le Premier Jour"

마르탱 파주 Martin Page



마르탱 파주는 1975년 파리 남부의 교외에서 태어나 지금은 파리 샤토루주에 살고 있다. 첫 번째 소설 〈나는 어떻게 바보가 되었나〉가 대중과 평단에서 성공을 거두며 신인작가로서 이름을 알리게 되었으며, 이후 〈빨간머리 피오〉, 〈사람들은 세상의 종말에 익숙하다〉, 〈아마도 사랑이겠지〉 등의 작품을 발표했다. 현재 그의 작품은 전세계 십여개 언어로 번역되어 소개되고 있으며, 〈나는 지진이다〉, 〈컬러보이〉, 〈초콜릿케이크와의 대화〉 세 작품이 최근 한국어에서 출간되었다.

Le premier roman de Martin Page, “Comment je suis devenu stupide”, a connu un énorme succès critique et public. Ses livres sont traduits dans une dizaine de pays. “Je suis un tremblement de terre”, “Le garçon de toutes les couleurs”, “Conversation avec un gâteau au chocolat” seront publiés en Corée cette année.



〈초콜릿케이크와의 대화〉 (열림원)
“Conversation avec un gâteau au chocolat”

에르베 툴레 Hervé Tullet



1958년 생인 에르베 툴레는 디자인과 조형을 전공한 뒤 광고 회사에서 아트 디렉터로 10여 년간 일하다 늘 꿈꾸던 일러스트레이터로서의 경력을 쌓기 시작했다. 유수의 월간지와 잡지 등에 일러스트 작업을 하던 가운데 1994년에는 처음으로 어린이 책을 출간했고, 그 후 자신만의 그림 작업에 열중하며 〈10 곱하기 10〉, 〈그림자 놀이〉, 〈책 가면 놀이〉 등 수많은 그림책을 발표했다. 현재 그는 전 세계에 소개되는 어린이책의 작가일 뿐 아니라, 그 책에 영감을 주는 아이들의 행복한 아버이기도 하다.

Hervé Tullet est né en 1958. Après avoir fait des études d'Arts plastiques et d'Arts décoratifs, il réalise, en 1990, ses premières illustrations pour la presse en France et à l'étranger et publie son premier livre pour enfants en 1994. Depuis, il se consacre à l'illustration et à la peinture.



〈여행놀이〉 (루크북스)
"Jeu de voyages"

베르나르 베르베르 Bernard Werber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국립언론학교에서 언론을 공부한 뒤 「누벨 옵세르바퇴르」의 기자로 활동하며 과학 잡지에 게임에 관한 칼럼을 쓰던 중 1991년에 소설 〈개미〉를 발표, 전세계 독자들을 사로잡으며 단숨에 주목받는 대작가로 떠올랐다. 연이어 발표한 〈개미2〉는 엘르 독자상을 받게 되고 그의 개미 삼부작은 총 22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전세계에 소개되었다. 〈신〉, 〈파라다이스〉 등 성공적인 소설가로서의 경력 이외에도 〈나전여왕〉, 〈우리친구 지구인(가제)〉 등의 작품을 감독한 영화감독이기도 하며, 만화 〈EXIT〉의 스토리를 집필하는 등 다양한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다.

Ancien journaliste scientifique, Bernard Werber connaît son premier succès avec “Les fourmis”, publié en 1991, et fait une irruption remarquée sur la scène littéraire. Un succès qui depuis ne cesse de se confirmer avec des ouvrages traduits dans plus d’une vingtaine de langues.



〈파라다이스〉 (열린책들)
"Paradis sur mesure"